#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 인연이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㉘ '주군의 태양'(2013)




'주군의 태양'은 가난하고 귀신에 시달리는 태양과 돈은 많지만 상처투성이에 허세덩어리인 주군이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더욱 돈독해지는 인연을 보여 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불교계의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스무 명가량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수천 명이 몰려 대기업 경쟁률을 방불케 하기도 한다. 많은 남녀가 일명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를 알아 가기를 바라지만, '나는 절로'처럼 특별한 만남의 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청춘 남녀의 만남이 힘들어진 것일까. 흔히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상대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힘들다는 말일 게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내 약점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속내 터놓을 친구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온 마음을 다 건네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반쪽을 찾는 일은 어떠할까. 지금부터 진정한 솔로 탈출을 위한 불교적인 만남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드라마 '주군의 태양' 이야기를 해 보자.

딱히 번듯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살면서 고시원 관리 일을 하는 태공실(배우 공효진)은 귀신을 본다. 귀신이 될 정도로 이생에 미련과 한이 많으니,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공실이 만나는 귀신들은 대부분 피투성이거나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화가 되는 유일한 인간인 공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 달라고 부탁(또는 강요)을 한다. 심지어 공실이 정신을 놓으면 이때다 싶은 귀신들이 공실의 몸을 차지하기도 한다. 때문에 공실은 음주는커녕 잠도 깊이 잘 수 없다. 그렇게 귀신들 때문에 늘 겁에 질리고 주눅이 든 공실은 잠시라도 귀신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 안에 온갖 종교의 상징물들을 채워 놓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련한 청춘이다.

공실의 인생이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 태이령(배우 김유리)과 고등학교 동창인 공실은 태이령을 뛰어넘는 미모에 공부도 잘해서 '큰 태양'이라고 불렸다. 명문대 출신에 해외 봉사활동도 다녀왔고 스포츠도 만능일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7년 전 사고를 당하고 3년 만에 깨어난 이후로 귀신이 보이는 저주와도 다름없는 능력이 생겼다.

복합 쇼핑몰 킹덤의 사장 주중원(배우 소지섭)은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인생의 관심이 오로지 돈뿐인 안하무인 성격의 소유자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면전에서 손짓하며 "꺼져!"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반사. 킹덤 맞은편에 새로 들어선 경쟁사 자이언트 몰을 망원경으로 염탐하며 어떻게 자이언트를 찍어 누를까 하는 것이 주중원 사장의 최대 관심사다. 이런 주중원을 향해 킹덤 직원들은 주군이라고 부른다. '주중원+폭군'을 줄인 말이다.

그런 중원에게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고등학교 때 벌어졌던 납치 사건의 후유증으로 난독증이 있는 것. 당시 중원은 여자친구인 차희주(배우 한보름)와 함께 납치당했고, 납치범은 중원의 아버지에게 몸값 100억원을 요구했다. 범인은 30분에 한 번씩 중원의 목소리를 가족들에게 들려줘 살아 있음을 확인시켰는데 중원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책을 읽게 했다. 문제는 중원이 읽은 책이 바로 한 명씩 죽임을 당하는 추리소설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였던 것. 책을 읽을수록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더해져 이후로 중원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중원의 아버지가 몸값을 치르고 중원은 풀려나는데, 그 과정에서 차희주가 죽고 만다. 범인의 강요로 몸값을 받아 온 희주가 홀로 인질로 남았고, 범인과 함께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범인은 도망쳤지만 희주는 차 안에서 불길에 휩싸여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중원은 내심 여자친구가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만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어느 폭풍우 치는 밤이다. 아들을 걱정하는 할머니 귀신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아들에게 할머니의 통장이 있는 곳을 알려 주고 돌아오던 공실은 갑작스런 폭우에 우연히 중원의 차를 얻어 타게 된다. 휴게소에서 공실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귀신에게 술을 따라 줬는데, 이를 목격한 중원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한다. 공실이 자신을 버리고 가려는 중원의 팔을 엉겁결에 붙잡자, 그 순간 귀신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귀신에게 벗어날 길을 발견한 공실은 이제 살기 위해 어떻게든 중원 옆에 있어야 한다.

**공실과 중원, 필요와 이득으로 만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위해 희생·죽음도 불사하게 돼**
**진면목 알아볼 때 진실한 반려자 만나**
**각자가 세상 장엄할 완전한 꽃이어야**




'주군의 태양'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한편, 귀신을 본다는 공실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중원은 우여곡절 끝에 공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한다. 나아가 귀신들에게 얻는 정보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특별고객관리센터를 만들어 공실을 곁에 둔다. 무엇보다 말해 주지도 않은 차희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실을 보며 중원은 100억원이 얽힌 오래된 진실을 밝힐 희망을 갖게 되고, 중원에게 공실은 '100억짜리 레이더'가 된다.

중원과 공실의 관계를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조금씩 공실에게 마음이 기울던 중원은 킹덤 몰 앞에서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비서의 말에 공실을 걱정하다가 결국 사고 현장으로 뛰어나간다. 그리고 사고 현장의 참혹한 귀신들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공실을 안아 주며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를 날린다. "방공호 왔어. 숨어!" 그렇게 중원은 공실의 '방공호'가 된다.

이처럼 서로를 가까이할 명분이 생긴 중원과 공실의 궁극적인 관계는 '주군'의 '태양'이라는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데, 특히 태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태공실의 성을 딴 '태 양'이라는 의미이지만 중의적으로는 실제 태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7년 전 사고를 당한 공실이 3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그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이때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마음을 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공실을 빛나게 해 줬다.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태양에 이끌려 귀신들이 공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중원에게도 똑같이 작동했다. 중원이 어두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인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태양이었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지겨워하면서도,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태공실, 곧 '태양'의 따스함이 중원의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인 것이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를 가리켜 '영혼의 반쪽' 혹은 '소울메이트'라고 한다. 최초의 인간 남성의 갈비뼈로 최초의 여성을 만들었다는 이웃 종교의 설명 때문인지, 남녀의 만남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을 때 많은 이들이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나의 성격에 모난 면이 있으니 상대는 부드러운 성격이었으면 좋겠다든지, 나는 내성적이니 상대는 외향적이었으면 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래서 부부는 성격이 달라야 잘산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주군의 태양' 역시 드라마 초반에서는 100억짜리 레이더와 방공호로 공실과 중원의 인연이 시작한다. 이런 관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이득이 있어야 만나는 관계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실과 중원은 이런 관계를 넘어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가 된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중요하게 작동한 것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 주는 능력처럼 각자가 갖지 못한 면을 서로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가난하고 귀신에 시달리는 태양과 돈은 많지만 상처투성이에 허세덩어리인 주군이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두 사람의 보완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그러니 나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수 있는 상대를 찾기보다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 또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눈을 키울 때,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을 나눌 진실한 반려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각자가 완전한 한 송이 꽃이 되어 세상을 장엄한다는 불교의 입장에서 펼쳐 내야 할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불교에서는 "소울메이트를 구한다"거나 "내 영혼의 반쪽을 찾는다"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부족한 이들끼리 만나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만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어느 시의 부제처럼.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